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신년 감사주일 New Year's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선갑 장로 2부/변준호 장로 3부/홍대원 장로 4부/유승빈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1-3.....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 17:22
- 말씀 Message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One the Y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울어도 못하네(찬353/새544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2022년 주제곡)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새해를 향한 첫 노래

First Song for the New Year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무슨 일을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시무식이 있고 종무식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시작과 마무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델교회에서도 저의 스케줄은 연초보다는 연말이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연말마다 각 사역팀이 마무리하는 모임들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의 소원과 꿈을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또한 시작에 그 중요한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만큼 모든 일의 시작은 전체를 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도 시작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떡잎만 보아도 나중에 성장해서 만들 어질 나무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베델교회는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며, 한 해 동안 만들어갈 나무의 떡잎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베델교회의 전통은 새해마다 주제곡을 작사 작곡하여 일 년 내내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새해 모토와 함께 주제곡이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965년 12월 16일, 우주선 제미니(Gemini) 6호를 타고 있던 월터 쉬라 (Walter Schirra)와 토머스 스태퍼드 (Thomas Stafford) 두 우주인은 다른 우주선 제미니 7호와의 랑데부라는 역사적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쉬라는 갑자기 하모니카를 꺼내 들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스태퍼드는 방울 밴드를 흔들며 장단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NASA 직원들은 감격하며, 최초로 사람이 우주에서 연주한 곡으로 기념하며, 그때 연주한 하모니카와 방울 밴드를 지금도 워싱턴 D.C 항공우주박물관 Air and Space Museum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두 악기가 박물관에 보관된 것은 신세계 우주를 향한 인류의 출발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신대륙이 강국의 정복욕으로 각축장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주 공간을 향한 첫걸음은 전쟁과 싸움보다는 크리스마스 캐럴로 상징되는 평화의 메시지가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올해의 모토는 “더 깊이, 더 높이 Go Deeper, Go Higher!”입니다. 새해 첫 주간 진행될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는 항상 한 해의 열매를 가름할 수 있는 영적 떡잎을 심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향해 인류가 처음 연주했던 캐럴처럼, 새해를 향한 우리의 노래는 [더 깊이, 더 높이]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뚫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높이 임하는 목표로 믿음의 날개를 펼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를 향한 성도님들의 노래를 담아, 힘껏 불러 봅시다.

Everything has a beginning and an end. Starting and finishing is important to all of us as we have ceremonies for initiation and closure. Even at Bethel Church, my schedule seems busier at the end of the year than at the beginning. Every ministry is busy with team closures. This is because having a beautiful closure is important. As we begin a new year, we share our hopes and dreams. We greet each other with “Have a Blessed New Year”. This greeting places importance of beginning. Like people say, starting is half the battle. Starting places significant meaning in everything we do. An old proverb, “A great tree can be recognized even from a seedling” also suggests importance of beginning. Just by looking at a seedling, one could expect what kind of a tree it will grow up to be. As we begin a new year, Bethel Church will have Elijah Early Morning Prayer services. We will determine what kind of seedling we will be and grow to a tree this year. As a tradition, Bethel Church will make a new theme song. We will praise God with determination throughout the year. This theme song will contain our new motto, our prayers and hope for God.

On December 16th, 1965, Astronauts Walter Schirra and Thomas Stafford of spaceship Gemini 6, accomplished a historical and successful rendezvous mission with Gemini 7. Schirra then took out a harmonica and started playing a Christmas carol, and Stafford played the rhythm with bells. All NASA staff became emotional watching this, and celebrated as the first song performed in space. The harmonica and bells are now on display in Air and Space Museum in Washington D.C. These two instruments are on display because of significance of the beginning of a new world in space for mankind. Instead of conquering a new continent with battles by a powerful nation like in the olden days, the first step toward space had a message of hope and peace represented by a Christmas carol rather than war and battles.

This year's motto is “Go Deeper, Go Higher!” Elijah Early Morning Prayer on the first week of New Year is a time to sow seedling that will bring us fruit for the year. Like the first performance of carol in space, our first song for the New Year is [Deeper, Higher]. We will run through the year with this hope. From our humble place on our knees, we will spread our wings of faith with the goal of glorifying God in our midst. As we head toward this brand new year, let's sing together with all our hearts.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1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 5:1-3)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주고 받습니다. 세상은 어떤 '복'을 바라고 이 인사를 나눌까요?
(참고, A. W. Tozer [The Pursuit of God])

2. 팔복은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아래 빈칸에 적어 보며 암송하십시오.

3.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아래에 정리해 봅시다.

1) _____ (참고/ 고후 12:10)

2) _____ (참고/ C. 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3) _____ (G. K. Chesterton)

4.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적용하기



주일 설교 시리즈 소개

산상 설교 강해 "게임 체인저"를 시작하며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된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24-25장의 소위 감람산 설교와 요한복음 13-17장에 나오는 다락방 설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일부터 다룰 산상설교(마태복음 5-7장)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설교 중

가장 유명한 설교이기도 한 산상설교를 새해를 시작하며 곱씹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묵상하려고 합니다. 송구영신예배 설교 제목을 "게임 체인저"로 정했는데, 산상설교야말로 제 목회의 "게임 체인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서른 살 어린 나이에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면서 무엇보다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다뤘던 설교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였습니다. 신학교 교실에서 배웠던 진리의 말씀들을 처음으로 현장에 들고 나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것이 교실 밖에서 통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교실 밖에서 통할까 하는 질문은 잊어버렸고,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고꾸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수줍은 성격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버렸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며 덕담을 나눕니다. 산상설교야말로,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게임 체인저 시리즈는 복을 다르게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더 깊이 더 높히, 새해 모토처럼 "게임 체인저"와 함께 더 깊은 은혜와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 진짜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한요 목사

2022년 베델 주제가

Go Deeper, Go Higher

GO DEEPER, GO HIGHER

베델교회 2022년 주제가

김한요 / 최철기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혹시 이번에도 주제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떡하나 심히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QT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전달받고는 곧바로 가사를 정리한 다음 멜로디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작업해 본 익숙한 방식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니, 저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베델의 예배에서 1년간 결단 찬양으로 불러질 노래를 만들 자격이나 능력없는 부족한 저로서는 담임목사님의 메시지처럼 감사 이전에 회개가 우선임을 고백합니다. 연습을 위해 급하게 만든 오류 투성이 악보 앞에 주님께서서는 달란트 품은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받은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아직 팬데믹의 환란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영광만 높이는 나날이 이어지기를 간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최철기 간사

♩ = 70

F E⁹7 A⁷ Dm⁷ G⁷ Am⁷ D⁷ Gm⁷ C⁷(sus4) F B^b/C

5 Fmaj⁷ A⁷(b9) Dm⁷ F/C B^bmaj⁷ F/A G/B C⁷(sus4) C

1. 그 리 스 도 의 사 랑 우 리 가 운 데 뿌 리 깊 이 박 히 고 터 가 굳 어 졌 으 니
2. 못 다 이 룬 꿈 너 머 진 삶 언 저 리 하 나 님 의 말 씀 이 능 령 임 을 깨 달 아

9 Fmaj⁷ A⁷(b9) Dm⁷ F/C B^bmaj⁷ Am⁷ Gm⁷ C⁷(sus4) C

14 Fmaj⁷ E⁹7 A⁷ Dm⁷ F/C B^bmaj⁷ B^bm(maj⁷) F/C D⁷(#5) Gm⁷ C⁷(sus4)

더 . 깊 이 었 드 러 무 를 풀 게 하 소 서 환 란 속 에 더 낮 은 십 자 가 자 리 에 서 -

18 Fmaj⁷ E⁹7 A⁷ Dm⁷ F/C 1. B^bmaj⁷ F/A Gm⁷ C⁷ F

더 높 이 날 게 치 는 믿 음 주 소 서 오 직 주 님 의 영 광 높 이 게 하 소 서

23 B^bmaj⁷ F/A Gm⁷ C⁷(sus4) C

주 님 의 영 광 높 이 게 하 소 서

26 Fmaj⁷ E⁹7 A⁷ Dm⁷ Cm⁷ B^b(b5) B^bmaj⁷ /B^b /C B^bm/D^b F/C D⁷(#5) Gm⁷ C⁷(sus4)

더 깊 이 었 드 러 무 를 풀 게 하 소 서 환 란 속 에 더 낮 은 십 자 가 자 리 에 서 -

30 Fmaj⁷ E⁹7 A⁷ Dm⁷ F/C B^bmaj⁷ F/A E⁹7 A⁷ Dm⁷ B^bm/D^b

더 높 이 날 게 치 는 믿 음 주 소 서 오 직 주 님 의 영 광 주 님 의 영 광

34 F/C D⁷alt Gm⁷ C⁷(sus4) B^bm/F F

주 님 의 영 광 높 이 게 하 소 서

인터뷰 - 담임 목사 신년 대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목사님,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시는 목사님께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궁금해 하신던 이야기도 듣고 또 올 한 해 펼쳐질 베델의 사역을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베델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권면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코로나 이후 영적 지지개를 제대로 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고 일어날 때, 혹은 피곤을 떨쳐 버릴 때 지지개를 켜듯이,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예배와 훈련과 섬김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모토 "Go Deeper, Go Higher"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게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해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때 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 번씩 걸으면서 깨달은 것은, 걷고 뛰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영적 지지개를 켜고 날아오르고 싶을 타이밍입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o Deeper! 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에는 그 어떤 사역을 시도해도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없게 되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는 인격의 기본 없이 말을 하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며,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자족이 없으면, 남는 것은 교만한 얼굴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Go Deeper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높게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세상은 누가 더 높게 올라가느냐로 경쟁하지만, 우리는 누가 더 기도의 자리로, 누가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느냐로 먼저 씌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Go Higher는 내가 가는 목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자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목표점은 Go Deeper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가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higher ground에서 있을 것입니다.

올해 베델 주제가 가사를 쓰시면서 받으신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간혀 지낸 지난 2년간의 세월을 뒤로하고, 날아오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자꾸 '더' 낮은 자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바울의 기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총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3:19)를 저도 구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야"한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16, 17) "속 사람" "뿌리" "터"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건물을 쌓아도 무너질 허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팬데믹 때 받은 잊지 못할 교훈인 [가장 중요한 것만 남는다]를 다시 상기하며, 십자가와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를 넓혀갈 때, 더 높게 믿음의 창공을 날아오르는 날개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년 만의 임직과 새로운 큐티 교재 큐티인 도입, 클래식 아카데미 개교 등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역들을 통해, 앞으로 베델이 나아가게 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를 뚫고 나온 동창생들이 전우애 못지않은 단결된 마음으로 임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훈련시킨 일꾼이라는 점에서 더 기대가 됩니다. 베델의 멋진 전통이 그러하듯이, 맑은 자는 충성입니다. 더 멋지게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실 임직자들을 응원하며 기대합니다. 팬데믹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밀어 주신 복이 있다면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라 생각합니다. 내일을 향한 가장 적절한 투자는 자녀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영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 세대만 섬기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인구도 줄고, 출산도 줄고, 교회 학교도 없어지는 추세에 교회도 그 수가 급격히 줄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 설립은 교회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말씀 운동의 일환으로 '큐티인'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었고,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로 오신 김양재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도전을 받아 늘 맘에 품었던, 이민 교회의 모든 세대와 가정의 장벽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숙제로 삼고 있다가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번역팀을 만들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날아오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자꾸 '더' 낮은 자리 생각이...

베델 성도 새해 결심

배려와 베품이 넘치도록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새해에는 더 사랑하며, 더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일 4:11)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높이 비상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아영 권사

사랑스런 CIM친구들과 CIM을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CIM 학생들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자매(CIM 교사)

2021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일 수 없었고 찬양할 수 없었던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며 예배와 찬양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드러지는 저의 사랑의 표현에 충성됨이 있길 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길 기도합니다.

이정원 집사(베델 콰이어)

그동안 저를 놓지 않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이 부족했지만 예수채플과 셀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길 안에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현재 형제(예살, 청2목장)

2021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예지 (CIM, 10학년)



2021년을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뿐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더욱 더 강하게 경험했던 특별한 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기대하며,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베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정하은 집사

2022년도 베델교회 표어는 Go Deeper, Go Higher라고 합니다. 빠른 세월에 흘러 떠내려가는 얇은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간구하며 깊어지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며 더욱 높아지는 2022년을 기대해 봅니다.

조현지 사모

새로운 한 해를 모든 성도와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맞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마저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받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규덕 장로

크리스마스에 묵상하는 새해 각오는 자연스레

예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 예수의 존재 이유가 죄인 된 나, 가난한 우리, 낮은 곳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게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며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닮아 가듯 그분을 사랑하며 내 존재 이유와 삶의 방식도 그분을 따라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교사(K국)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찬양하는 자리가 그리웠고,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에

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더 깊고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황정환 집사(베델워십)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리셋하며 2022년도 베델의 표어처럼 저 자신을 비롯해 저희 JM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Deeper, Higher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바야시 지나 집사(일본어 예배)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스크린 시간을 줄이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Joyce Lim(BYM, 9학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베델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 QT를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Mitch We 집사(BGC 예배)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 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 시니어/온라인/베델뉴스: 김형균 목사
-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전도폭발/기도: 박성권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2년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

새해의 첫 시간을 경건한 예배와 뜨거운 기도로 시작하는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만나야 했던 엘새였지만, 올해에는 담임 목사님과 특별한 초청 강사님 두 분을 모시고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드립니다. 2022년 엘새는 'Go Deeper Go Higher'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더 깊이 엮으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새해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 높은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22년 1월 3일(월)-1월 8일(토) / 월-금: 오전 5시, 토: 오전 5시 30분

▶ 주제: Go Deeper Go Higher!

▶ 강사: 김한요 담임 목사 / 박석훈 목사(멕시코 우리교회) / 홍기영 목사(분당 창조교회)

[새해의 기도제목 MY ONE PRAYER] 2022년 한 해 동안 응답받고 싶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새 기단 중 담당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일 년 내내 기도할 것입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 채널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교회 사무실에 기도 카드가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오셔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목회자나 행정사무실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 사무실: (949)854-4010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기도 초청 그룹	목회자 가정/셀 목사	실행위원/프로젝트 팀장/장로/인수집사	사역권사/협동권사	환우/베델 워십, 베델 콰이어	EM/일본어 채플/예살 청년/한국학교 교사	교회학교/CIM /BYM/교사

[기도 초청 그룹] 기도 초청 그룹은 현장으로 오실 경우 중앙 앞쪽에 마련된 지정 좌석에 앉으셨다가 기도로 결단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Zoom으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말씀 후 강단 기도회 시간에 목회자들이 함께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 ZOOM Meeting ID: 857 5827 6375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월)	1/9:	1부-김광영	2부-김진성	3부-김주홍	4부-윤세희
	1/16:	1부-김병수	2부-김진원	3부-김창남	4부-이영진
	1/23:	1부-김 철	2부-김태원	3부-김동원	4부-채명규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월)	1/8: 엘새	1/15: 김광경	1/22: 김경수	1/29: 김석열
강단꽃(1월)	1/2: 기승호, 김종현, 김한요	1/9: 김성희	1/16: 무명	1/23: 무명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 탁정호(소아과), 간호사- 채수정 다음주 | 의사- 오세영(한의학), 간호사- 성혜지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위드 코로나, 베델교회 지혜로운 방역생활 안내문

베델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성도님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가 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학교 부서(BYM, CIM포함)는 1월 둘째주까지(2일, 9일) 모든 활동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며 코로나 직,간접 접촉자분들은 필히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접촉이 없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든 예배와 모임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② 수시로 교회에 비치된 손세정제와 손씻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③ 코로나 확진자와 직,간접적 접촉이 있을 시에는 필히 PCR 검사를 받고 Negative 결과가 있을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④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신 경우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기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자발적으로 필히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Negative 결과가 있을 시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신년감사주일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Go Deeper, Go Higher"라는 주제로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2022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Go Deeper, Go Higher!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엘리야특별새벽기도회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7면참조)
일시: 2022년 1월 3일-1월 8일(월-금: 오전 5시, 토: 오전 5시 30분)
강사: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박석훈 목사(멕시코 우리교회), 홍기영 목사(분당 창조교회)

◆ 주차증 발급 안내 / 예배 후 즉시 출차

베델 캠퍼스는 주차증이 있으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비전주차장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차증 발급은 1월 9일부터 주차 사무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전주차장 셔틀 시간: 오전 5시 30분-오후 1시 30분(1월 9일부터는 오후 2시 30분까지)
주차증 발급 대상: ①임신 8개월부터의 산모 ②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 ③80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분 ④건강상의 이유로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

◆ MY ONE PRAYER 신청

2022년 꼭 응답 받기 원하는 한가지 기도제목을 받습니다. 엘새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담당목장 목회자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목회자나 행정 사무실로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채널, 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화-토 오전 9시-오후 5시, 주일 오전 8시-오후 4시

◆ 2022년 달력 및 성경통독표 배부

본당 앞 부스에 2022년 달력이 비치 되어 있으니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성경통독표는 새롭게 QTIN을 따라 맥체인 성경통독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져가셔서 말씀으로 Go Higher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새생명축제 1차 VIP 작정

다음 주일(1월 9일)에 1차 새생명축제 VIP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엘새기간 동안 하나님께로 인도할 VIP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수요 특별 기회 "예수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이 엘새 기간에는 한주 쉬고, 1월 12일(수)에 특별 게스트로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회가 방영이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QTin 영어 번역 자원 봉사자 모집

온 가족이 함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 위해 QTin 번역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한글을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분야: 새싹 큐티, 어린이큐티, 청소년 큐티 영어번역과 Editing and proofreading
문의: 정승락 목사 (714)512-1206, pauljeong@bkc.org
*한글과 영어가 가능한 BYM, CIM, 대학생 자녀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 교회학교 QTin

1월부터 2월까지의 영유아부(새싹큐티인)부터 K-5(어린이큐티인) PDF 영어 교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베델교회 식구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구매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Tin 1-2월 판매

온 가족이 함께 큐티하는 QTin 1-2월을 청소년 큐티, 장년, 장년 영어용으로 교회 카페에서 판매합니다. 새싹큐티인(영유아), K-5(어린이 큐티인)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 교역자 동정

박성권 목사님께서 KM 사역 목사로 오늘 주일(2일)부터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 축하해주세요

예살 공병주 전도사와 김상희 자매의 결혼식이 1월 8일(토) 한국에서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 연 권사님께서 12월 21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중곤 성도님(김도형 집사의 부친, 성지현 집사의 시부)께서 12월 25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백한기 집사님(백설희 권사의 부친)께서 12월 29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유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Have A Blessed New Year!

(Matthew 5:1-3)

1. We greet each other with 'Have a Blessed New Year'. The world greets with expectation of what kind of 'blessing'? (Ref: A.W.Tozer [The Pursuit of God])

Apply to Life



2. Beatitudes contain lifestyles for heavenly citizens. They are not simply hopeful expectations. They are natural attitude of believers that reveal Jesus. Write the verse 3 below and memorize.

3. Define below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1) _____ (Ref: 2Cor 12:10)

2) _____ (Ref: C. S. Lewis [Mere Christianity])

3) _____ (G.K. Chesterton)

4. Am I poor in spirit?